2026. 10.29

Fixed Income Strategy

채권 김지나
6148 / jnkim0526@eugenefn.com

10 월 FOMC 리뷰: 한 박자 쉬고

❝ 10월 FOMC,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3.75~4.00%)했으며 2명의 인상 소수의견 포함(리사 쿡 이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9월 기조와 별다른 변화 감지되지 않았음. 12월 인상 전망 유지.

❝ 성명서에서 주요 변화는 경기 판단. 9월 경제 활동이 '견고한(solid)' 속도로 확장한다는 문구를 '강력한(strong)' 속도라고 표현을 강화. 9월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더 좋다는 의견 확인. 또한 통화정책 기조 결정에 대해 '정보가 추가로 쌓인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 추가. 두 가지 모두 추가 인상을 지지하는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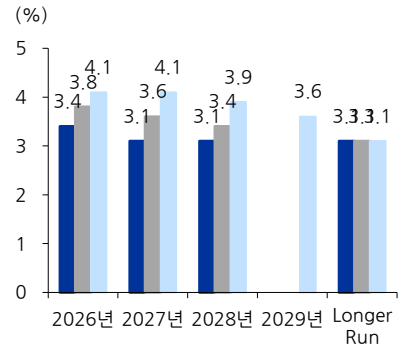
❝ 기자회견 중 주요 발언은 1) 9월 인상 후 금융, 신용여건에서 변화 감지 2) 전반적인 금융여건, 긴축적으로 변했으나 긴축적이라고 규정할 의향 없음 3)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 4) 인상 후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 지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5) 경제와 고용 강하게 확장 중 6) 연준의 양대 책무 중 고용 여건은 상당히 긍정적 7) 연준 통화정책회의 개편 언급. 2027년 8번 중 7번 금리결정, 2028년 6번 금리결정을, 나머지 회의는 통화정책 전략을 논의할 것.

❝ 추가로 매파적 시그널은 없었으나 완화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기존 입장을 유지했으나 강해지지 않았고, 시장에 새로울 것이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지난 주보에서 언급했듯이 9월 FOMC 이후 물가 여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동결 후 12월 인상, 내년 1분기 인상 정도의 경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주가 부진과 일부 섹터의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등 신용여건의 변화는 감지되고 있으나 전체 통화정책 경로를 훼손할 만한 불안 요인은 아님. 이 전까지 AI 관련 투자 확대와 구조적 변화로 인해 미국 중립금리는 올해 1분기부터 상승 중. 9월 인상 후 미국 실질 기준금리는 긴축적 영역에 돌입했으나 추가 인상 여력은 아직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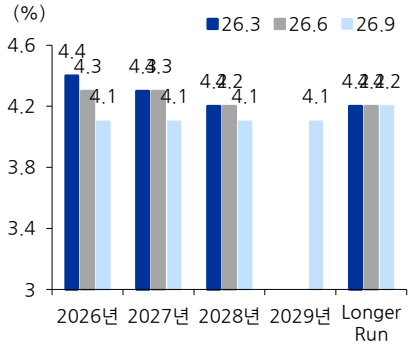
❝ 최근 주가 급락 및 AI 과잉투자 논란 등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경기 판단이 강했다는 것은 추가 인상을 뒷받침하는 근거 임과 동시에 향후 지표 개선세에 따른 장기금리 상방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음. 미국 장기금리, 고점은 확인했으나 추세적 하락 기대보다는 상방 열어두고 변동성 지속할 것으로 전망.

12월 추가 인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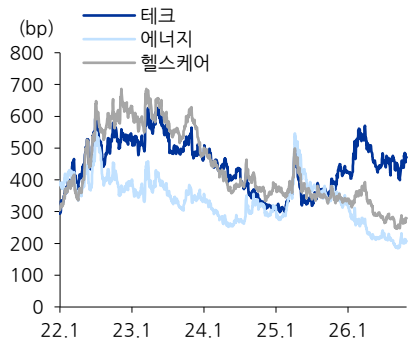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인상해도 고용 안정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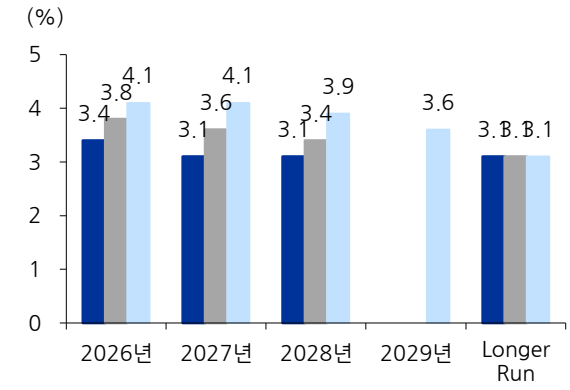
신용여건 불안, 일부 섹터에 국한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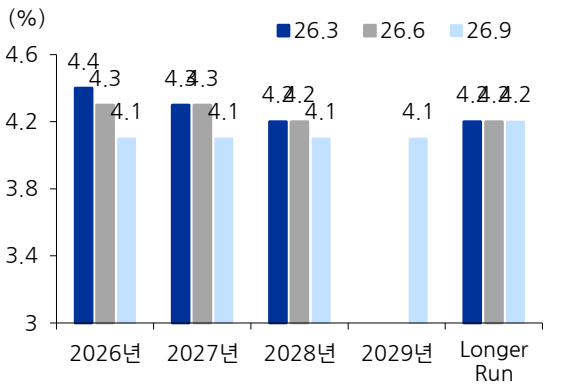
유진투자증권

9월 점도표 경로대로 12월 추가 인상 전망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연준,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고용 확장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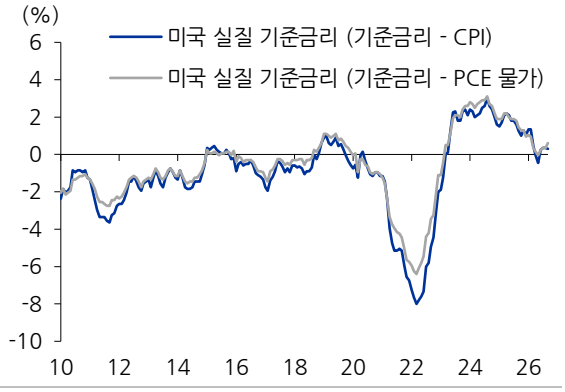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미국 실질금리, 긴축에 도달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미국 실질 기준금리, 긴축영역이나 강하진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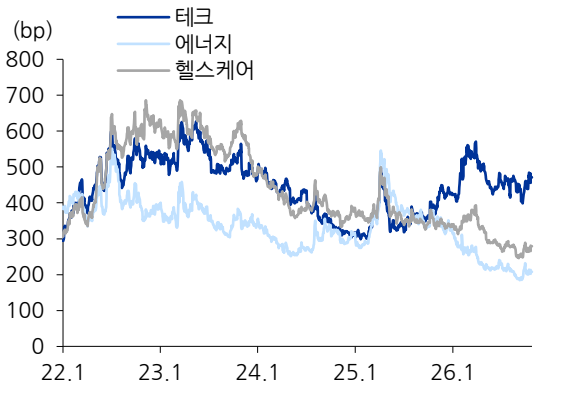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채권시장 변동성 높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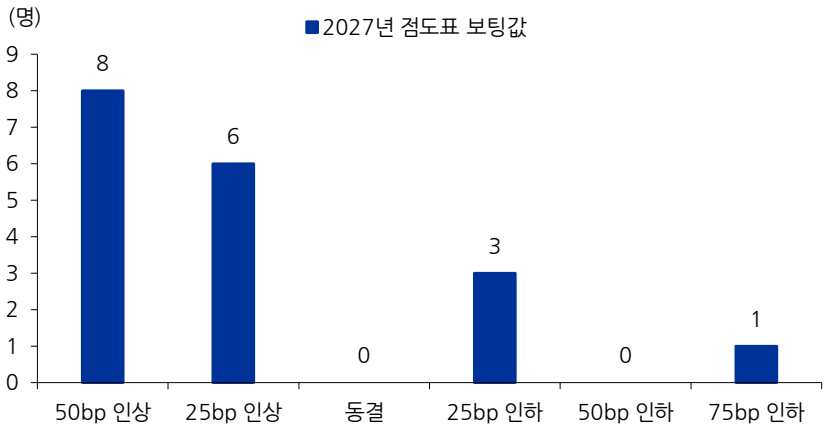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신용여건 불안, 일부 섹터에 국한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다행히 2027 년은 동결을 전망하는 점도표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